전통문화예술 활성화 한옥마을을 더 흥겹게

지난 15일 전주 풍남문화광장에서 열린 '제8회 한옥마을 트로트가요제' 입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상 - 한태순 · 최우수상 - 이광수 우수상 - 한기남 · 장진남씨 등 2명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가 주최하고, WBC 복지TV 전북방송과 전북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이 주관하는 '제8회 한옥마을 트로트가요제'가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 전주 풍남문화광장에서 열렸다.

한옥마을 트로트가요제는 전통트로트가요제를 통해 한옥마을을 더 흥겹게 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주시, 전주매일신문사 등이 후원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정선 제전위원장, 김양옥 가요제 본부장, 황금석 가요제 후원위원장, 이수정 가요제 추진위원장, 박윤수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총무부이사장 등 내빈들과 시민, 관광객들이 참석했다.

이번 가요제 예선에 통과한 11명이 무대 위에 올라 자신의 기량을 맘껏 펼쳤다.

가요제의 대상은 '고창에서 왔어요'를 부른 한태순(정읍)씨에게로 돌아갔다. 한씨에게 가수인증서가 수여됐다.

'누가울어'를 부른 이광수(대전)씨는 최우수상을, '타인'을 부른 한기남(익산)씨가 우수상을 수상받았다.

이어 정진남(익산)씨도 우수상을 수상받았다.

우등상에는 박종철(서울)씨와 최변호(전주)씨, 장려상에는 홍조순(세종)씨와 장초희(광주)씨가 수상받았다.

박두환(전주)씨와 이영삼(김제)씨가 인기상을 수상받았고, 최승권(익산)씨가 도전상을 수상받았다.

가요제와 함께 진행된 대회 공로 표창장 수여식에서 김두현 노블리안 치과 원장이 도지사 감사패를, 황금석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이사장과 송희숙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이사가 정동영 국회의원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이어 정동수(하모니카 연주자)씨가 전주시장 표창장, 김수린(노래강사)씨가 교육감 표창장, 두창균(마술사)씨가 전북자치도의회의장 표창장을, 최정옥(장구공연자)씨가 전주시의회의장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김정선 제전위원장은 "전통문화도시 전주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많은 분들아 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시라"고 인사말을 남겼다.

김양옥 가요제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트로트인 저변확대를 위해 열리는 행사 참가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들의 풍요로운 삶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대상을 수상한 한태순씨가 무대 위에 올라 열창하고 있다.

김양옥 가요제 본부장의 인사말.

개회사를 하고 있는 가수 이수정.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광수씨의 무대.

초대가수들의 축하무대.(사진 왼쪽부터, 구재영, 김민주, 정도헌)

축하공연에 나선 '동방불패' 고고장구팀.

우수상을 수상받은 한기남씨가 박자에 맞춰 율동을 하고 있다.

대회 공로상 시상식에서 도지사 표창장을 수여받은 김두현 노블리안 치과 원장.

대회 공로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원 표창장을 수여받은 송희숙(사진 왼쪽)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이사와 황금석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이사장.